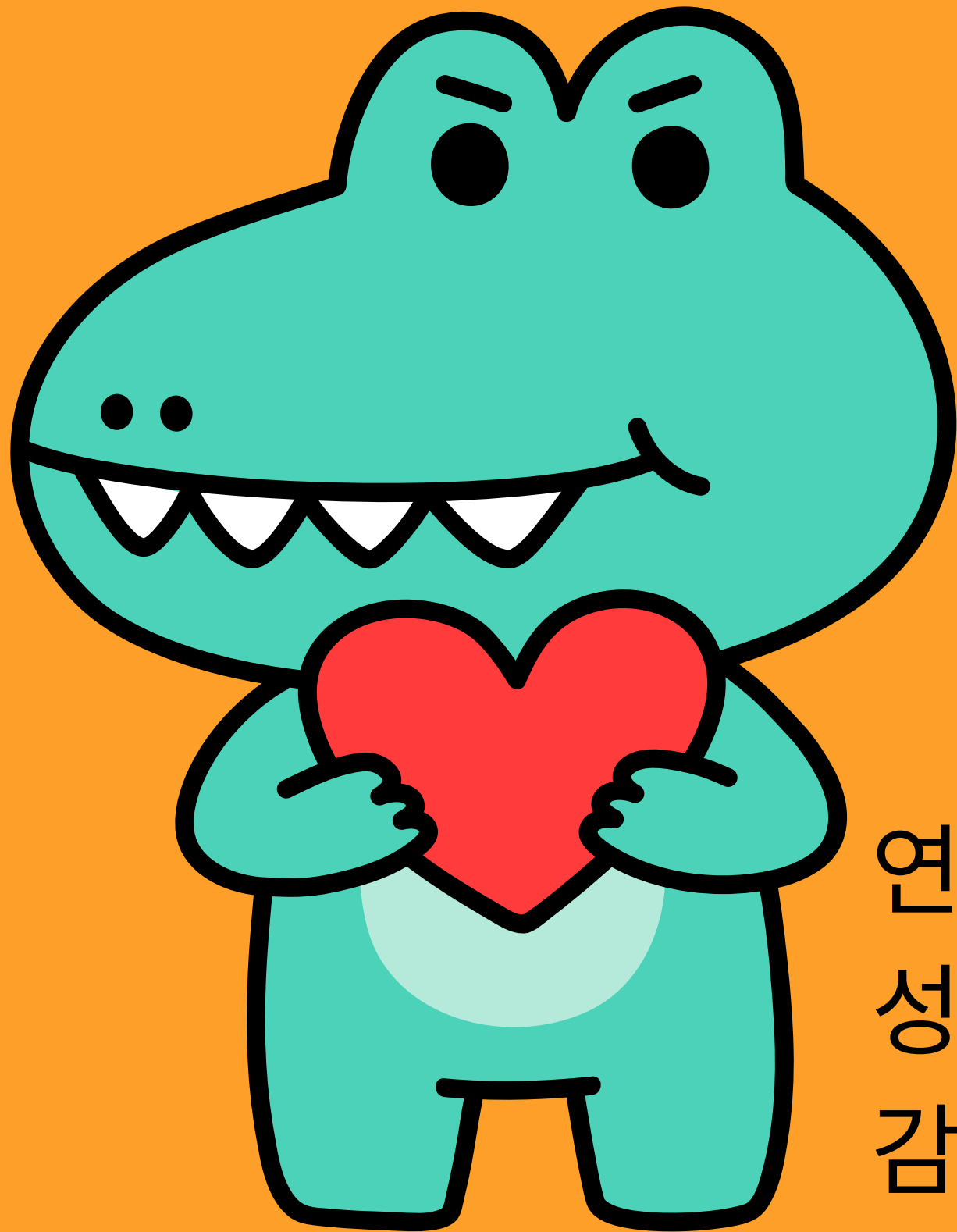


# 연령 성별 감정분류에 따른 어휘 특징 조사

감성대화말뭉치\_validation.csv 파일을 중심으로 분석

김병주, 이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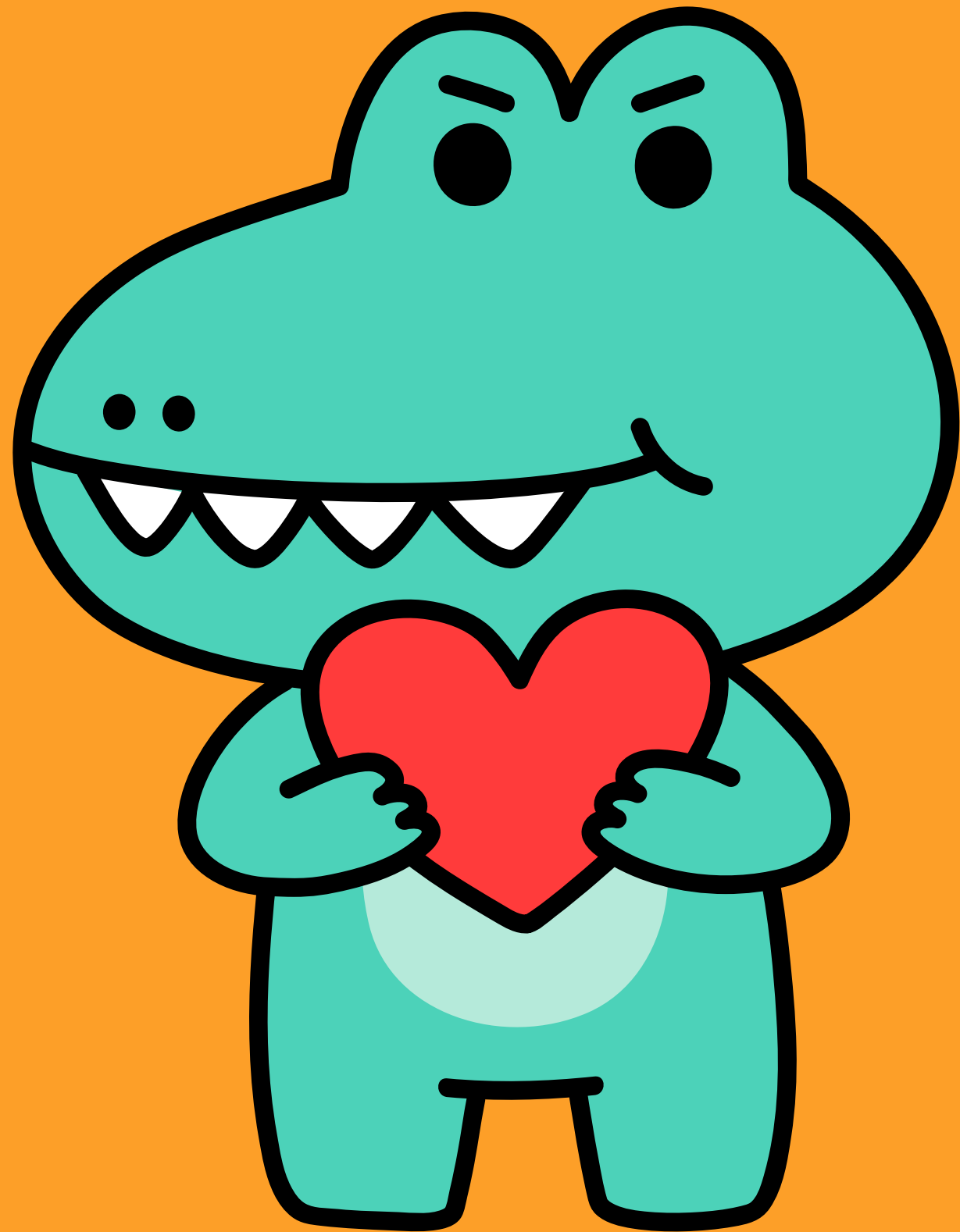


## # 분류 기준

연령 4가지('청년' '청소년' '중년' '노년')

성별 2가지('여성' '남성')

감성 6가지('분노' '슬픔' '불안' '당황' '상처' '기쁨')



## # 불용어처리

```
stopwords_ko = ["하다", "있다", "되다", "그", "않다", "없다", "나",  
"말", ..., "속"]
```

```
custom_stopwords_ko = ['나다', '못', '잘', '다', '많이', '수', '너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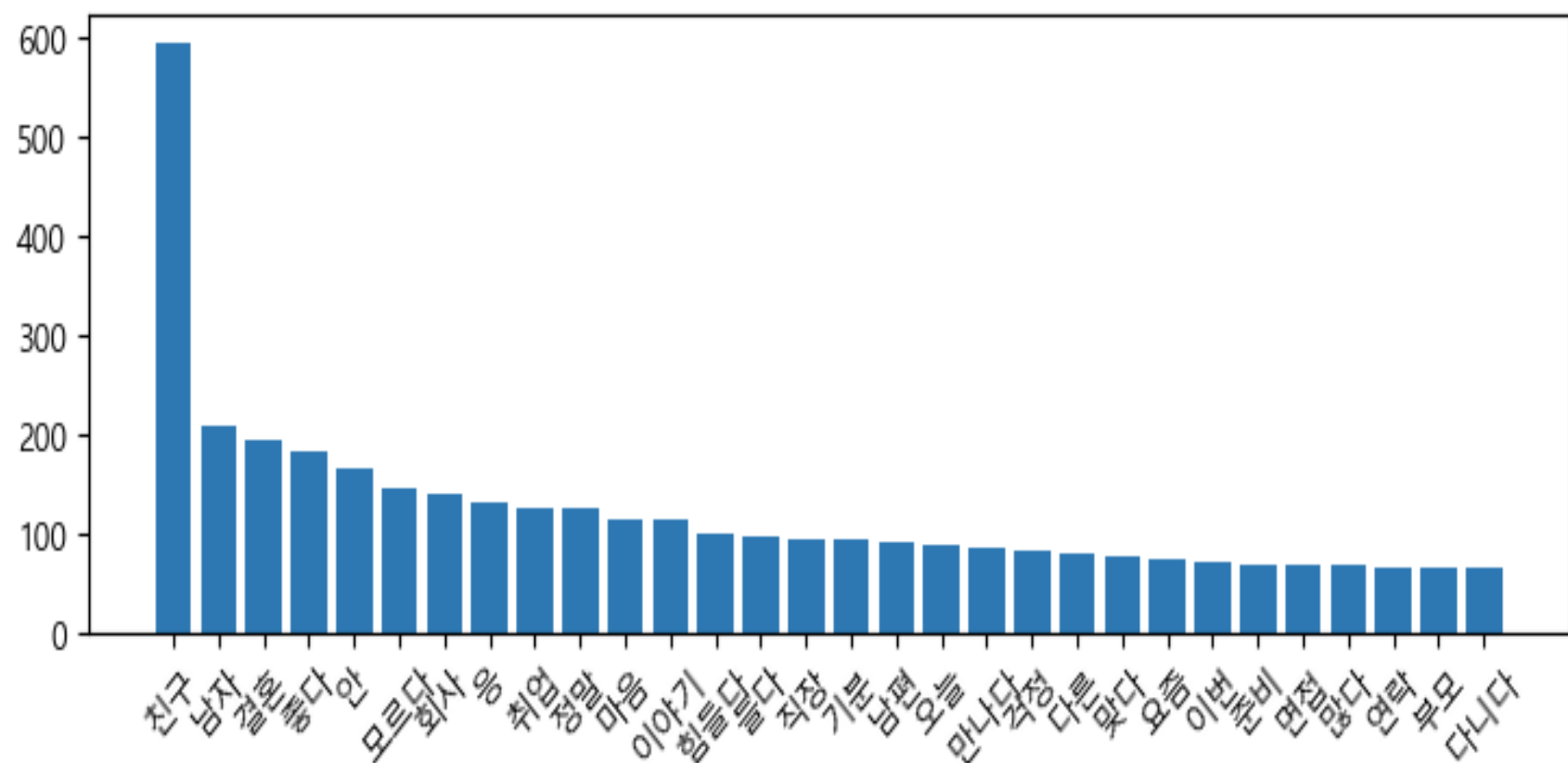
```
onlyMorph_list(rn, sentences, pos=['NNG', 'NNP', 'VV', 'VA', 'XR',  
'IC', 'MM', 'MAG', 'MAJ'], eomi=Tr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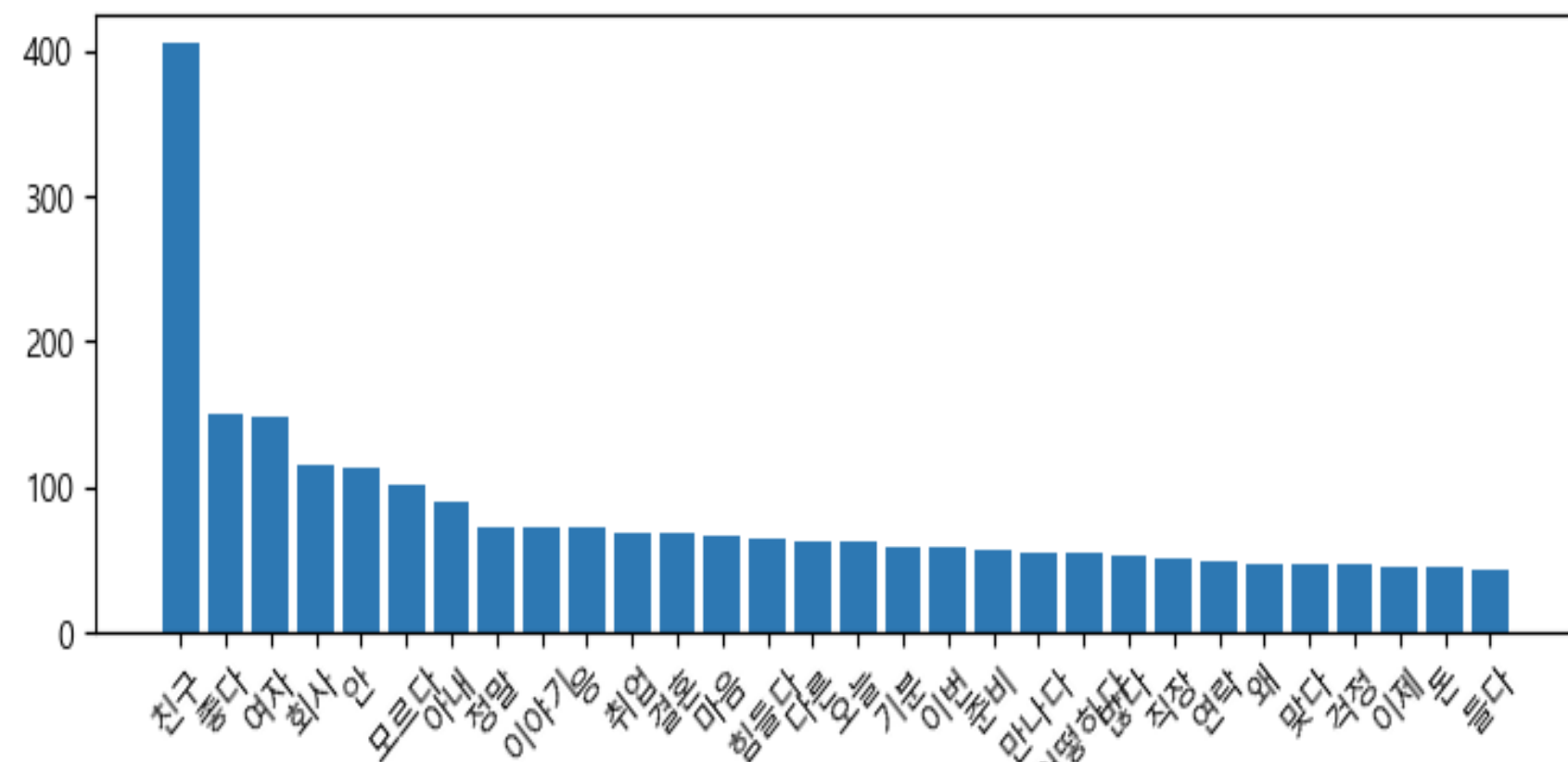
# 친구

\* 청소년과 청년은 대화에서 '친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기쁨'의 감정을 제외하고는 2번째 키워드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청년,여성



청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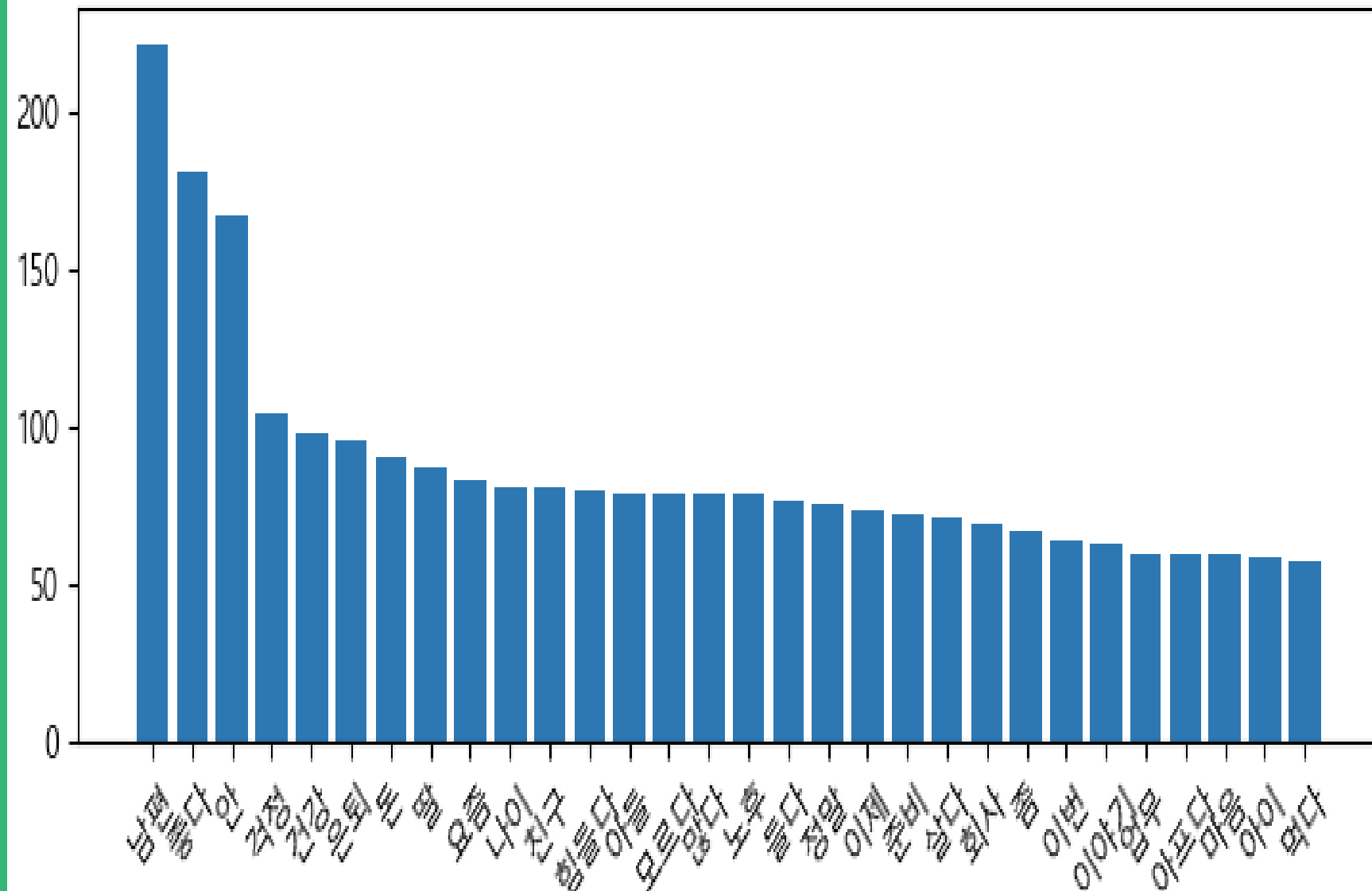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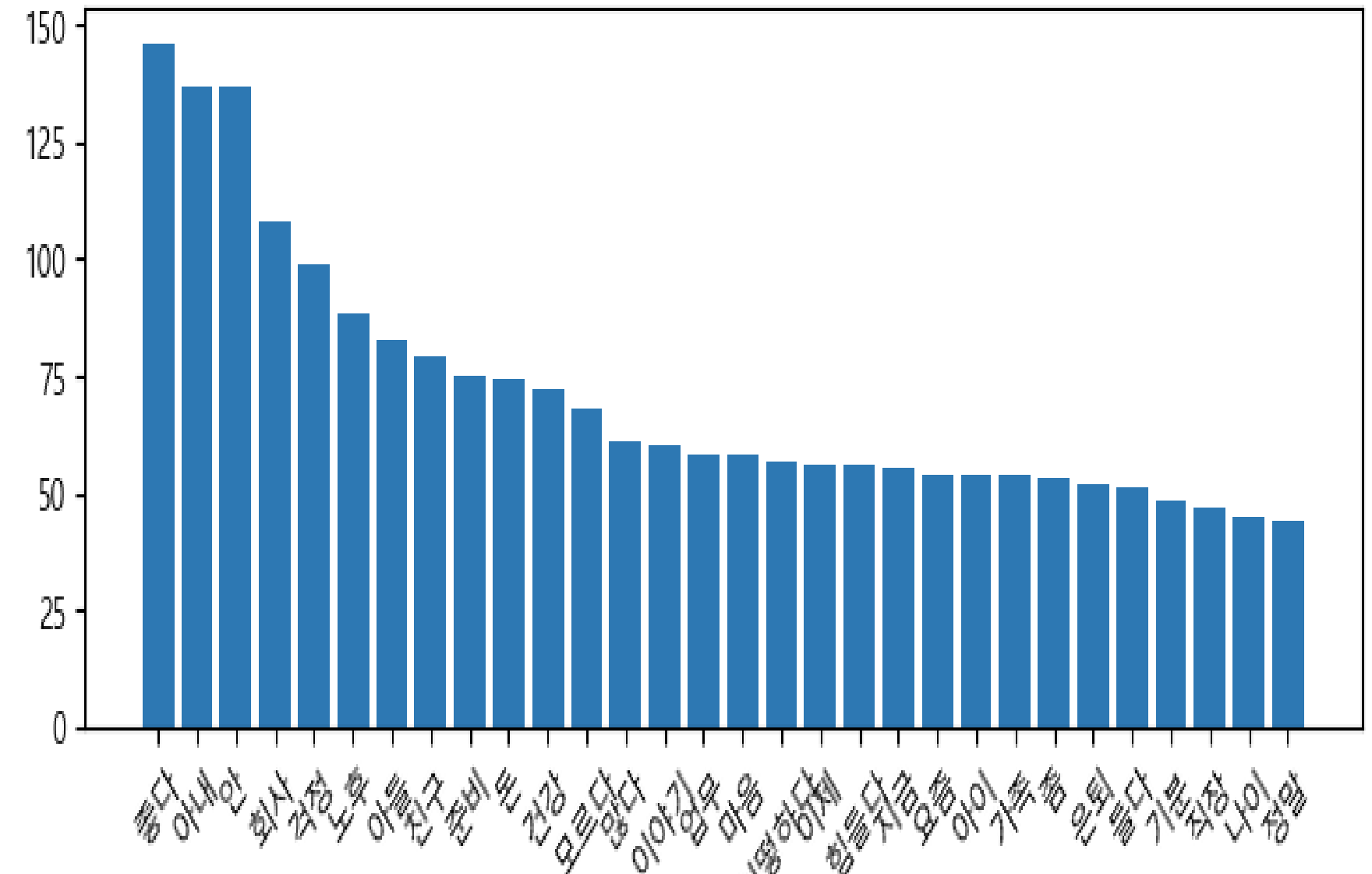
# 친구

\* 반면 중년이 되면 친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회사나 가족이 채우는 경우가 많다.

중년, 여성



중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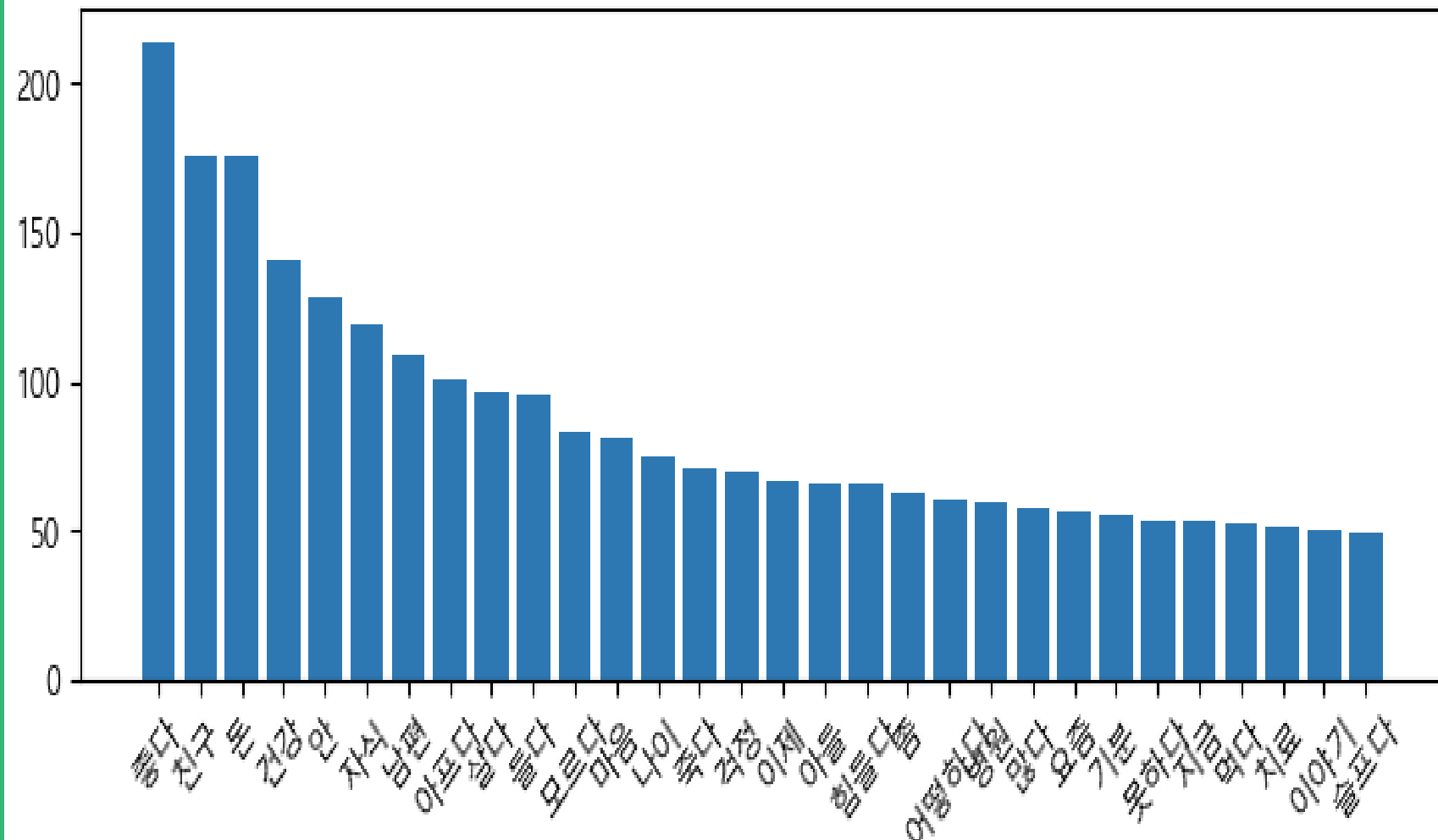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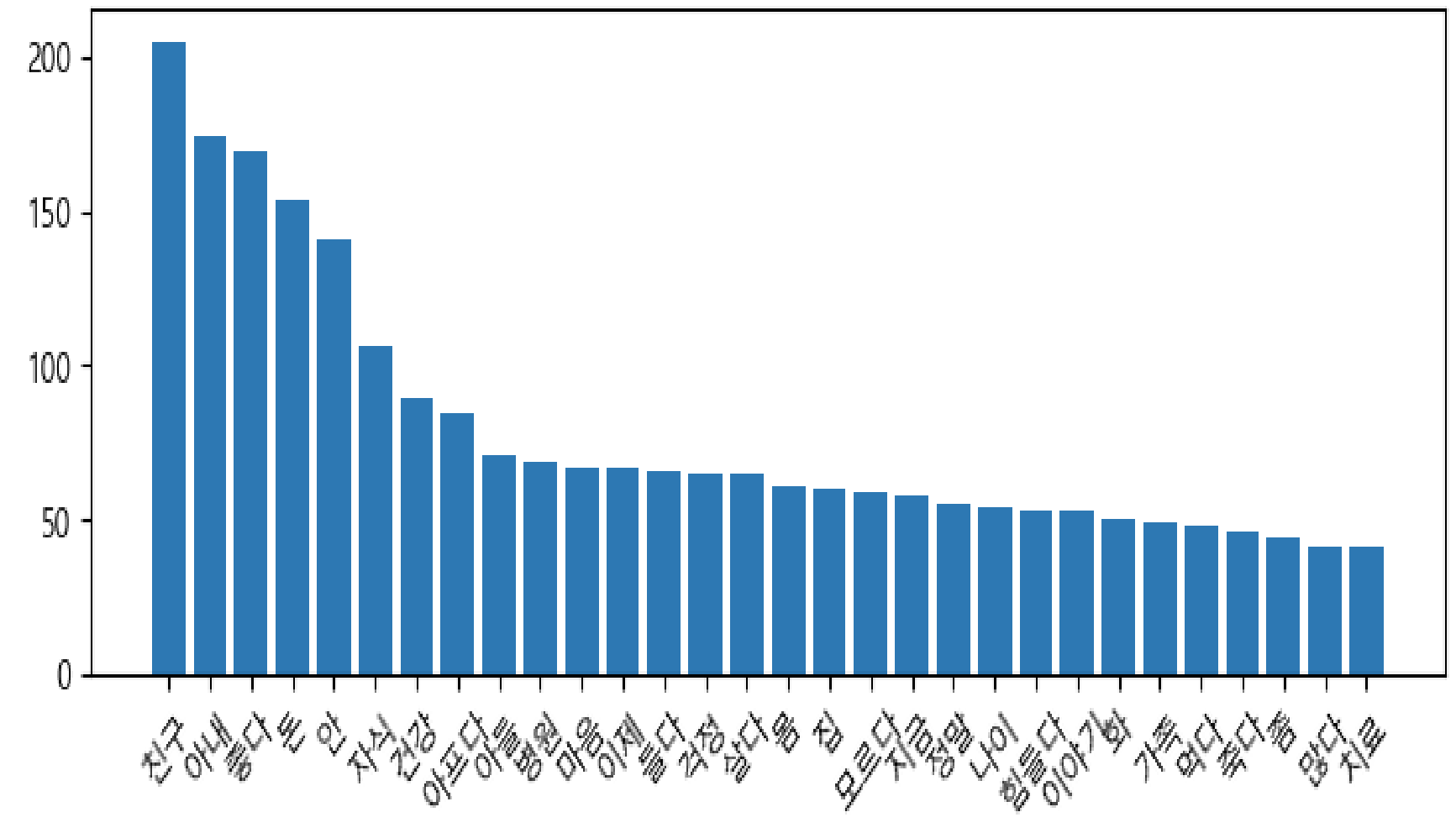
# 친구

\* 노년에는 친구 키워드가 다시 상위권으로 오지만 청소년과 청년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노년,여성



노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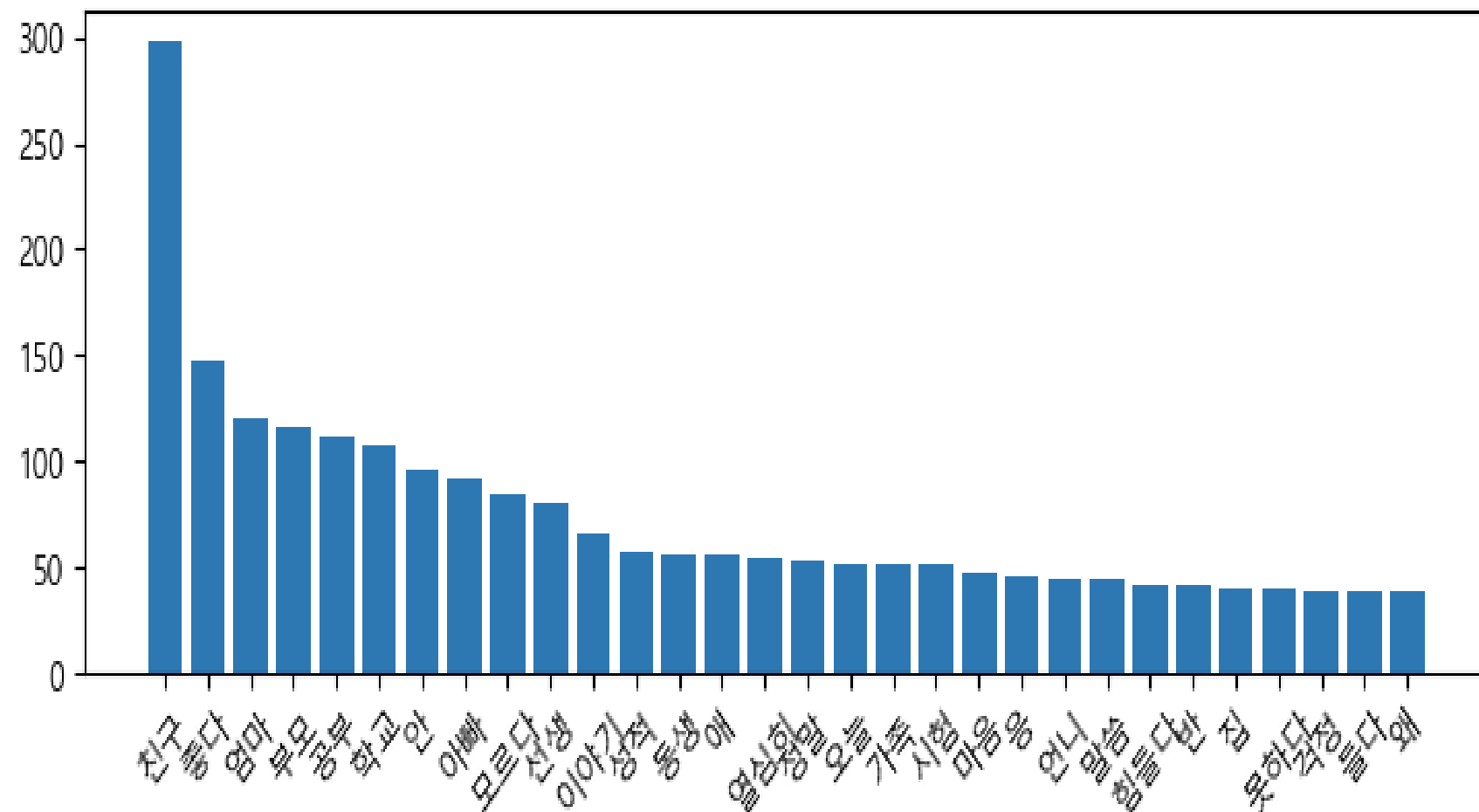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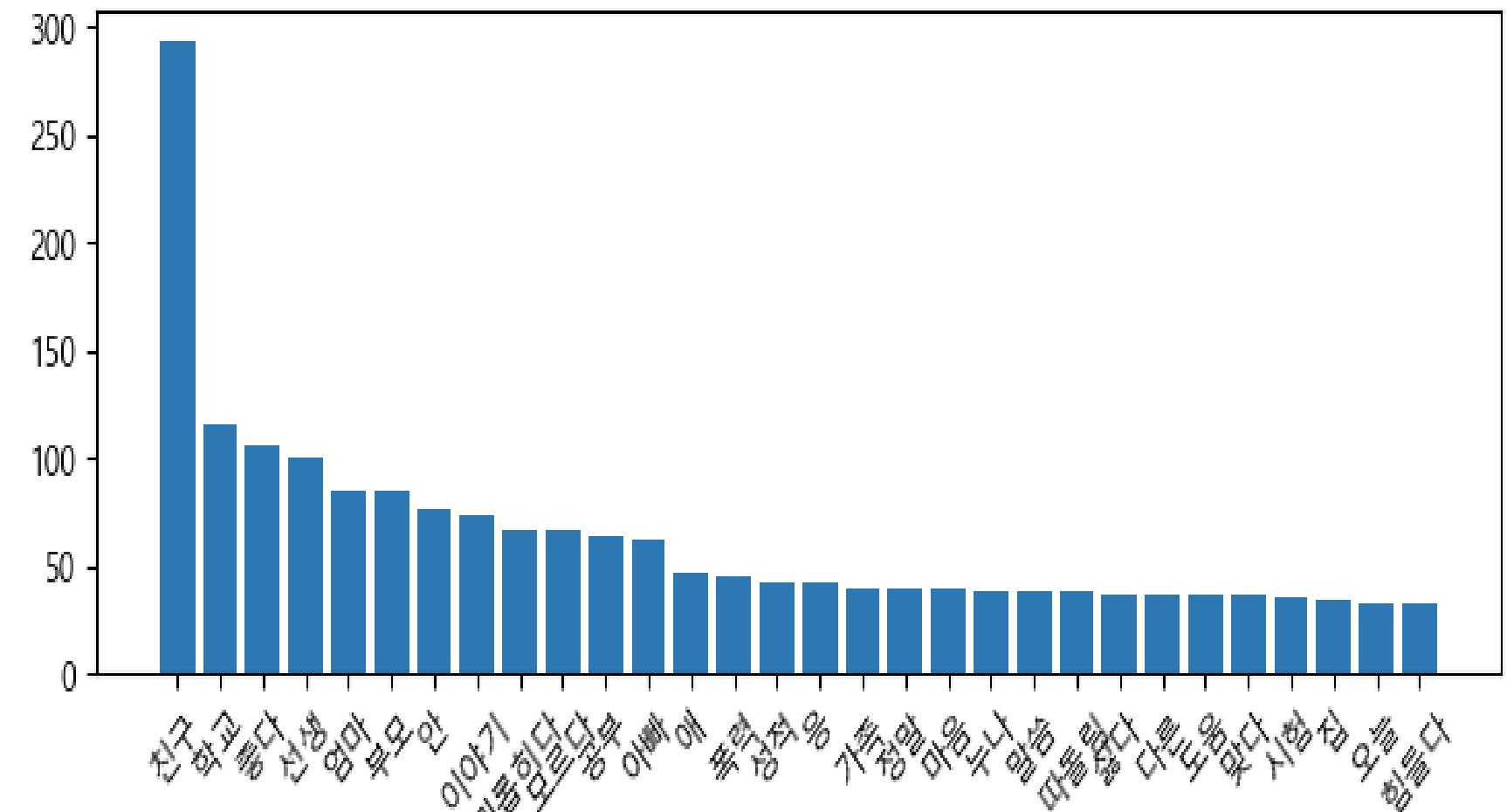
# 삶의 무대

\* 청소년의 경우 생활반경이 집, 학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키워드의 다수가 부모,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학업(성적, 공부, 선생, 학교), 부모(엄마, 아빠, 부모)

청소년, 여성



청소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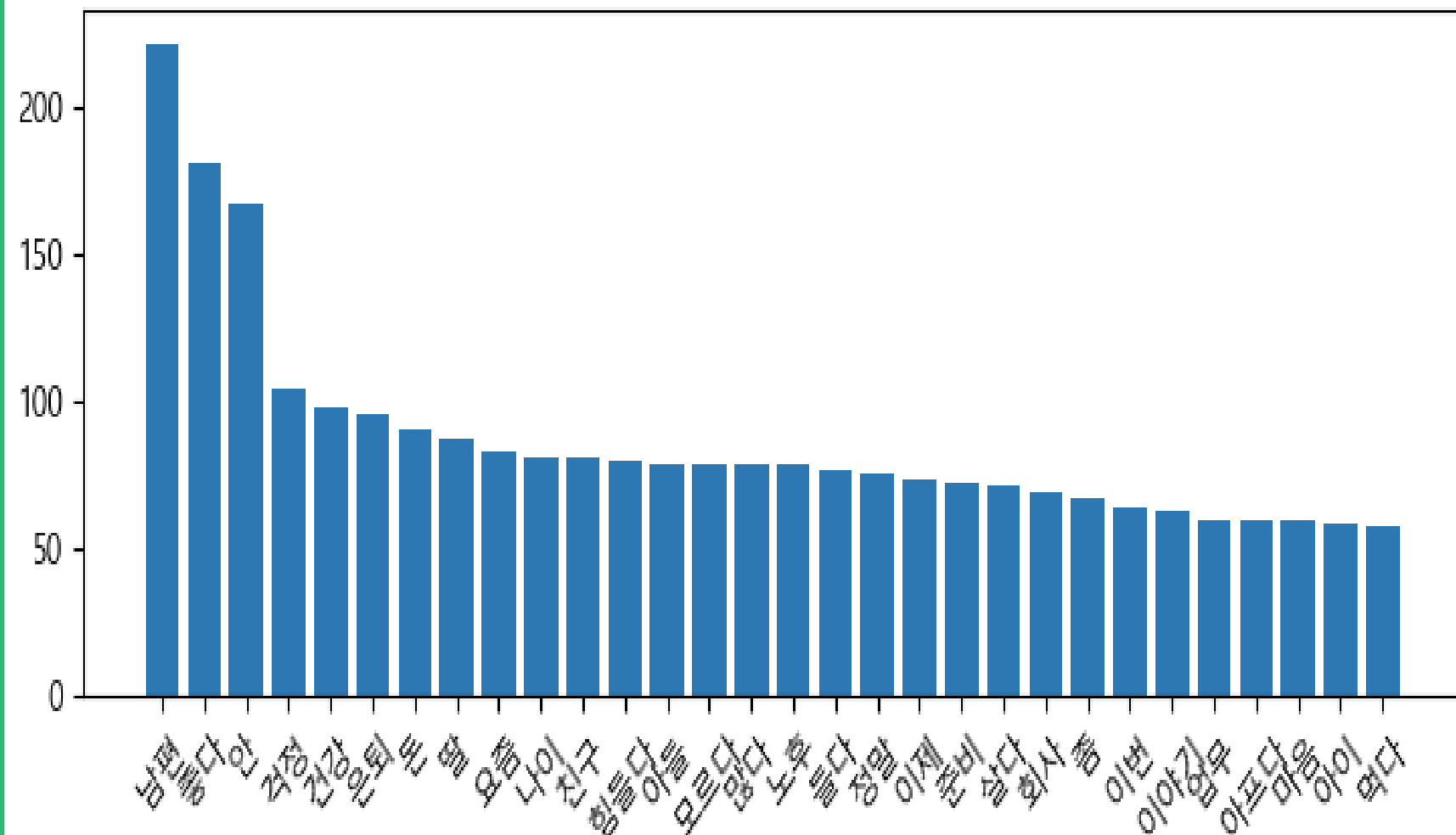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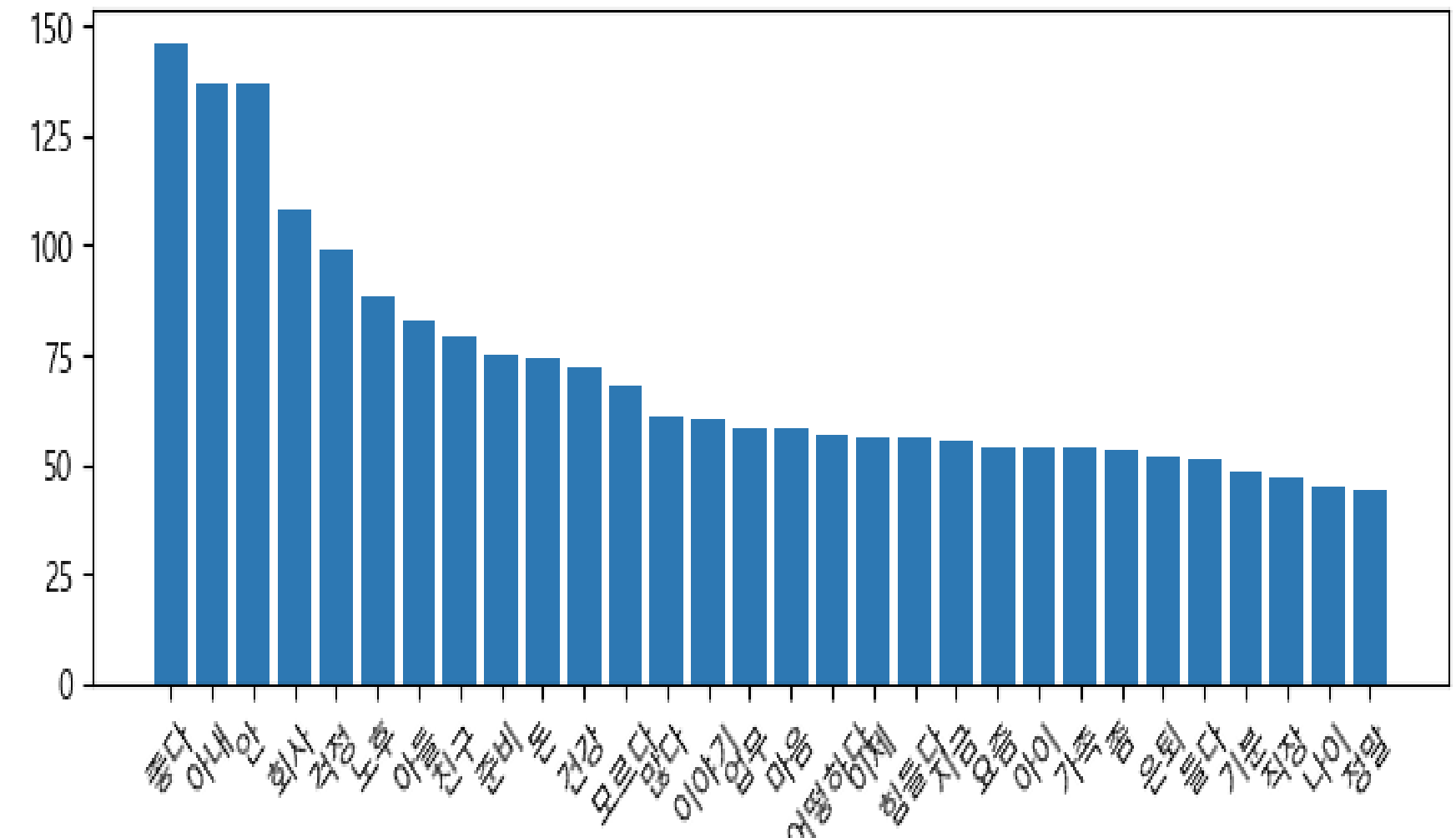
# 삶의 무대

\* 중년의 경우 회사와 부부의 키워드가 상위를 형성했다. 특히 중위권이었지만 은퇴, 노후의 키워드가 미래와 회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

중년, 여성



중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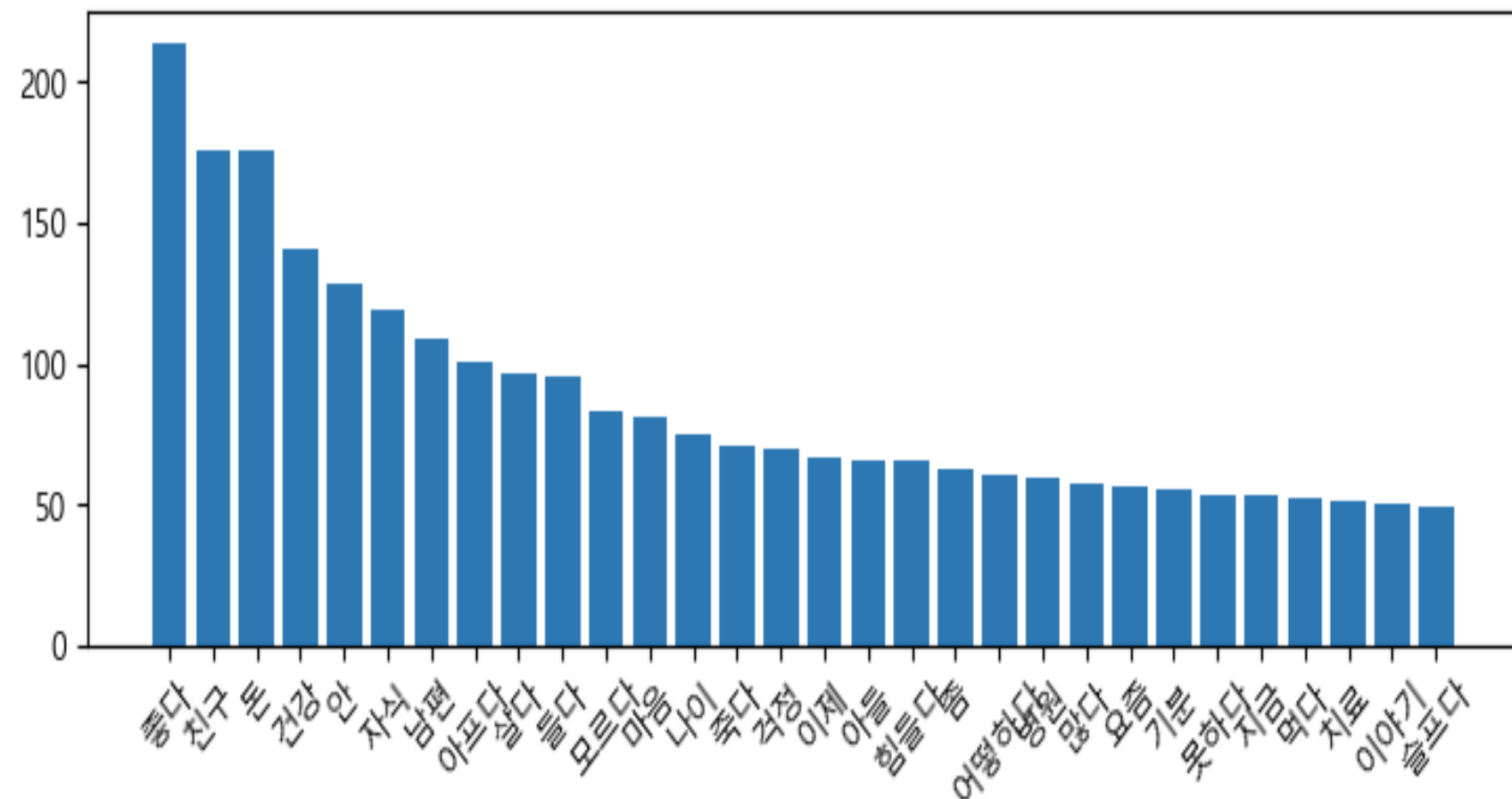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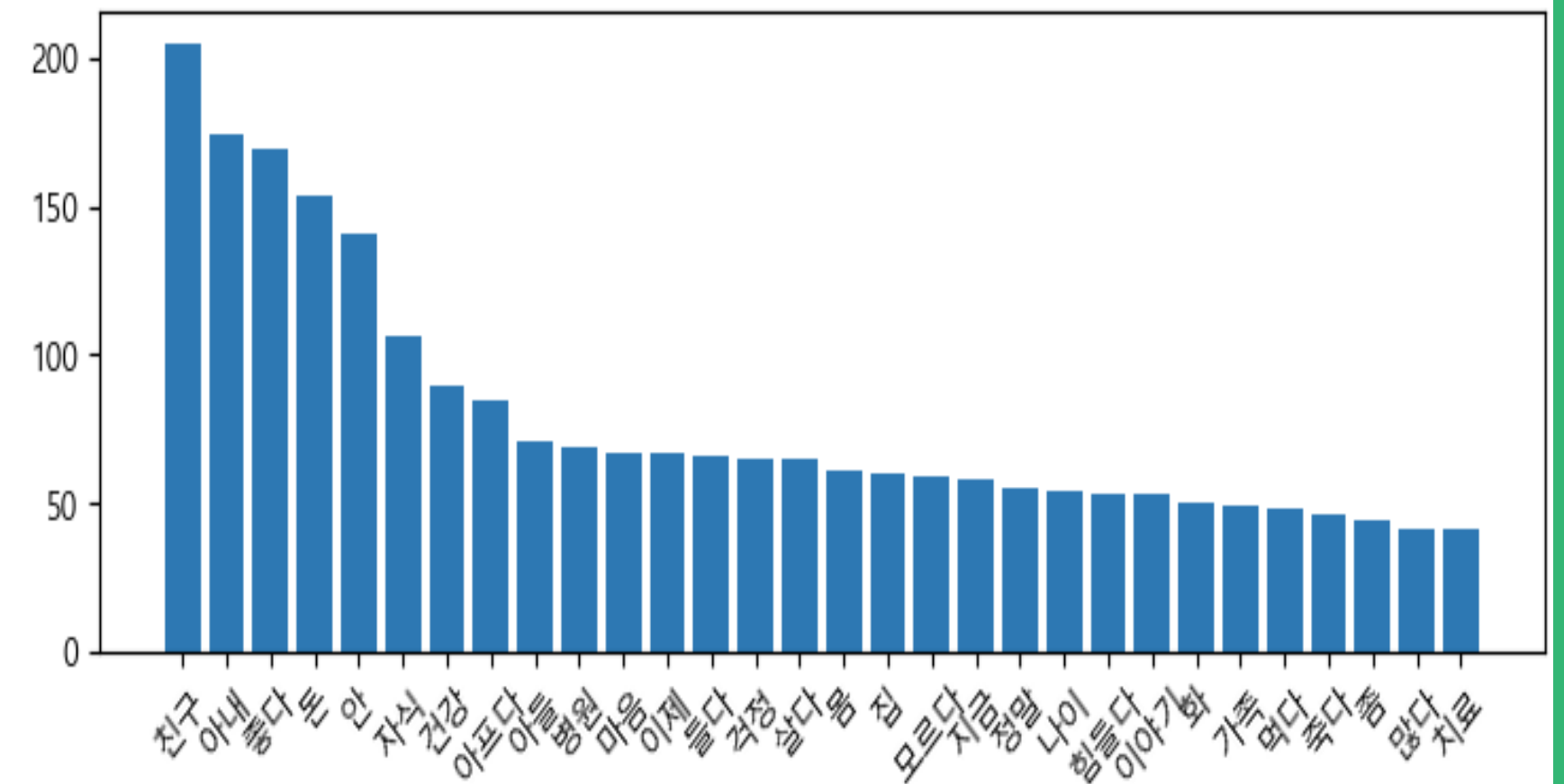
# 삶의 무대

\* 노년의 경우 '돈' 문제가 대두되고,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 키워드들이 슬픈경우가 많았다. '아프다, 힘들다, 병원, 치료' 등이 상위권 키워드에 있었고, 특이한 점은 아들, 딸과 같이 지칭하는 것보다 자식이라고 전체를 합쳐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노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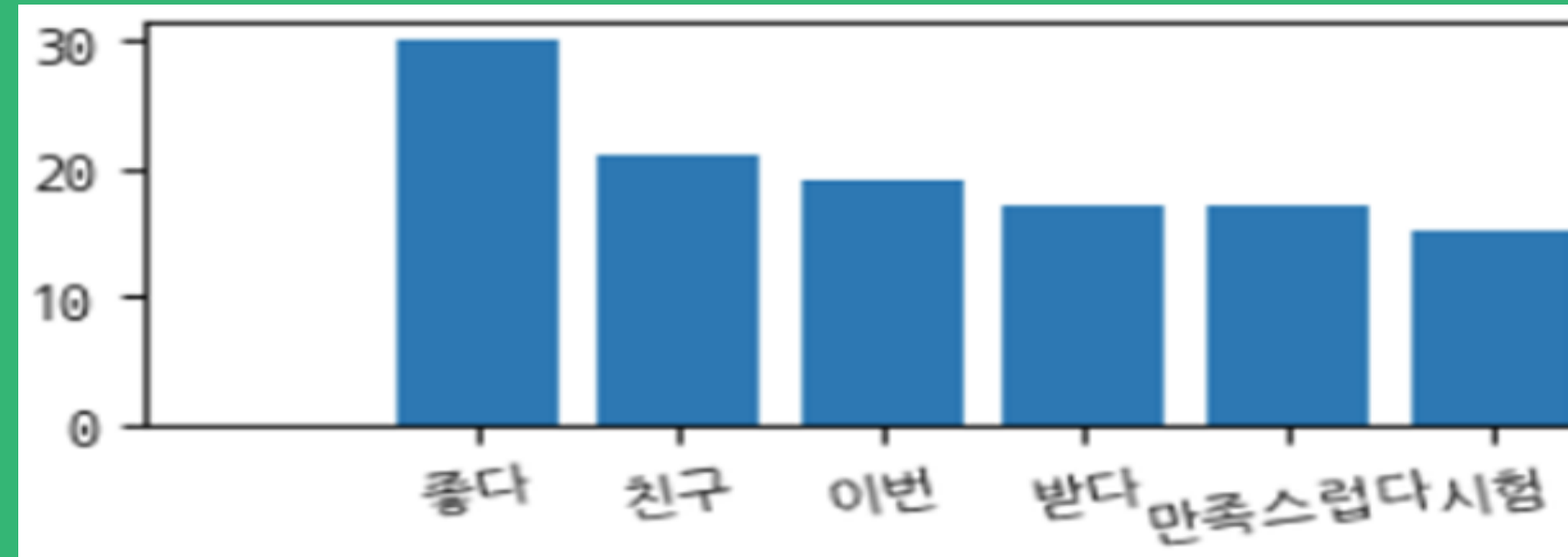
노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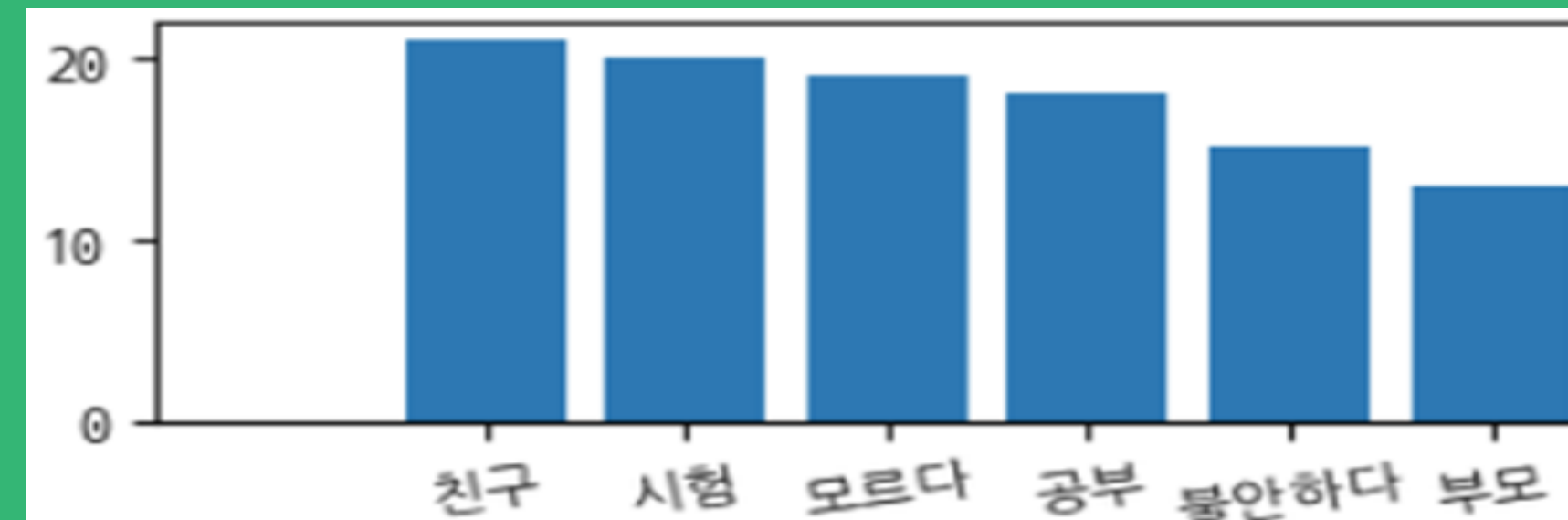


청소년 + 학업 및 진로(상황키워드)

>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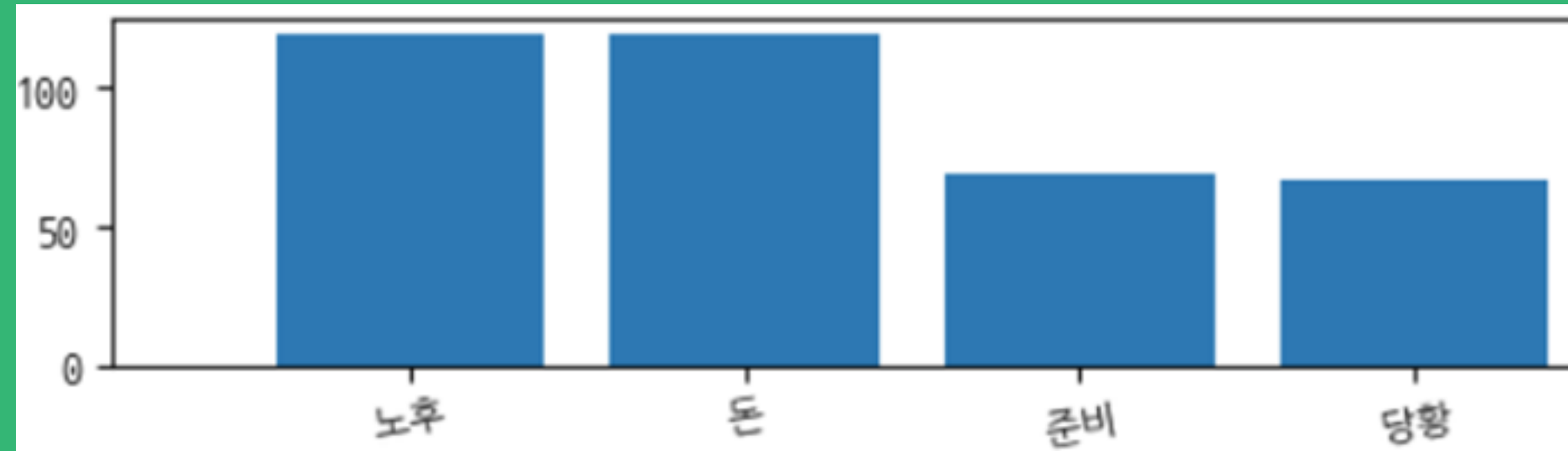
>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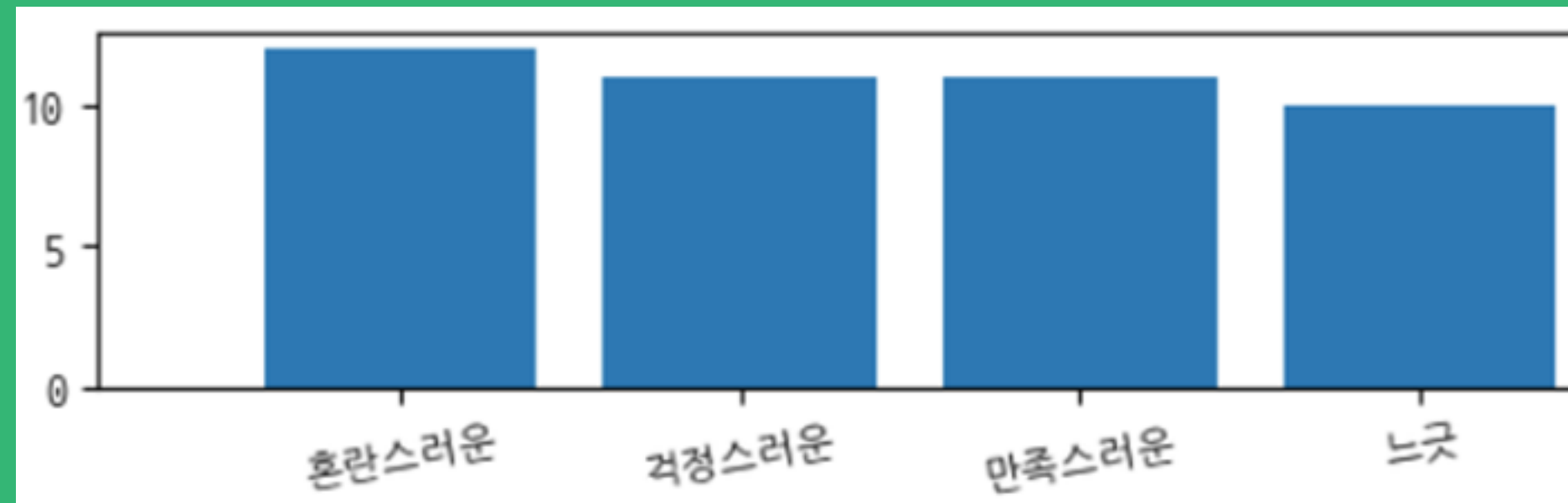
- 청소년 시기에는 시험 성적에 따라 감정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 + 재정, 은퇴, 노후준비(상황키워드)  
> 단어



> 감정\_소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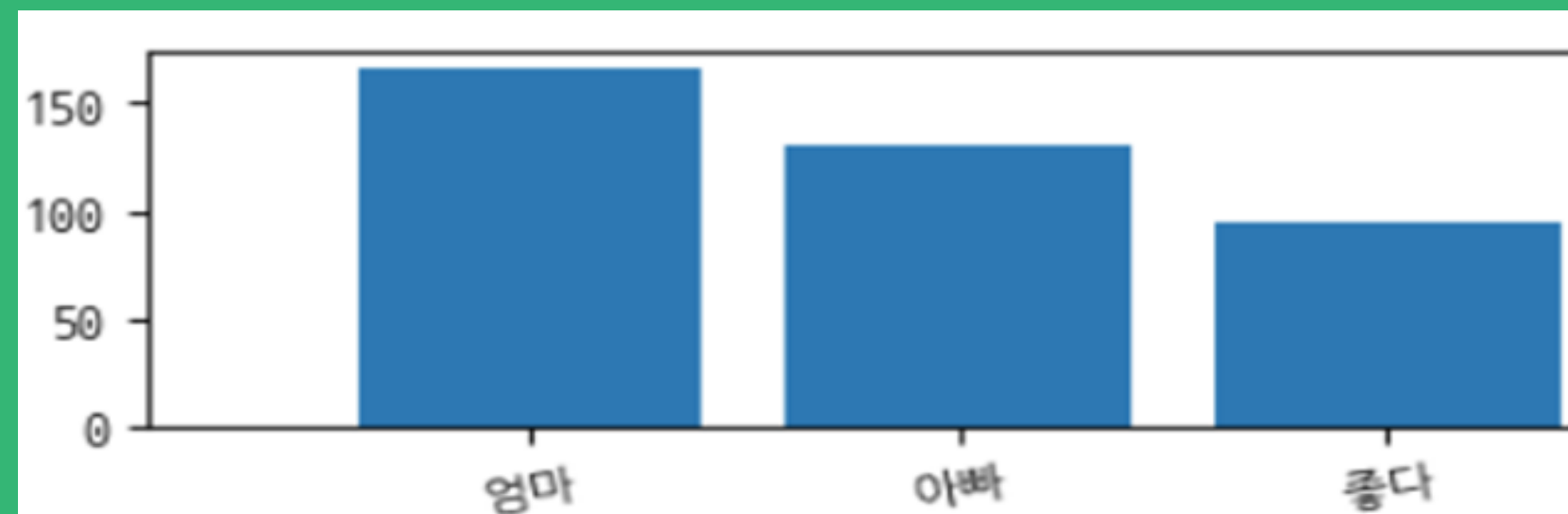
- 중년은 재정, 은퇴, 노후준비로 인한 만족스러운 감정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이는 시기이다



# 부모, 남녀, 부부, 자식

청소년의 경우 '부모', '엄마', '아빠' 라는 단어가 모든 감정 키워드에서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면 청년부터 그러한 키워드가 사라졌고 '남녀'의 키워드가 생겼으며, 중년에는 부부를 칭하는 '남편', '아내'의 키워드가 생겼으며, 노년에는 '자식'의 키워드가 생겼다.

## -가족관계



-추출한 키워드를 통해 “엄마”, “아빠”, “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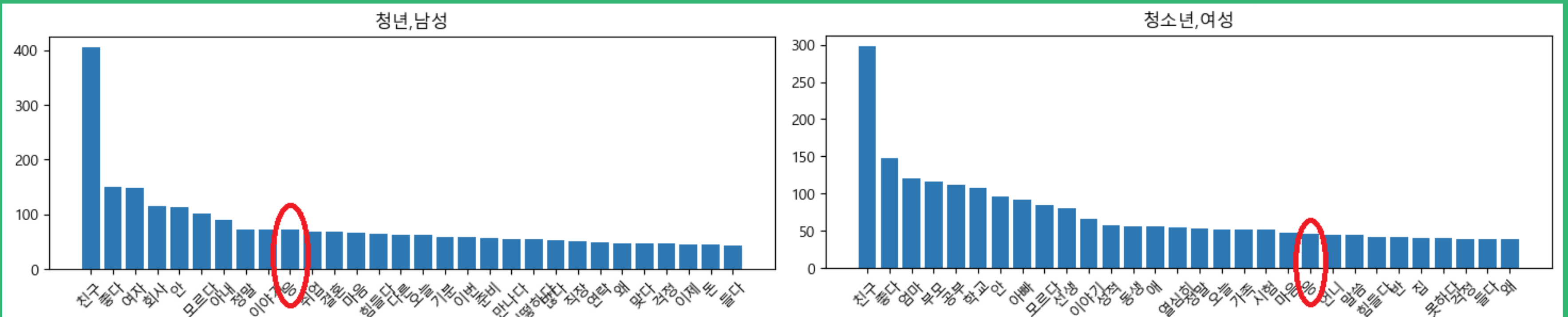


# 발언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응'과 같이 짧고 친근한 단어의 비중이 높았다. 청년의 경우 모든 감정에서 '응'이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분노'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나타났다.

반면 중년의 경우 기쁨 감정의 경우만 희박하게 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노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이에 따른 발언 성향이 달라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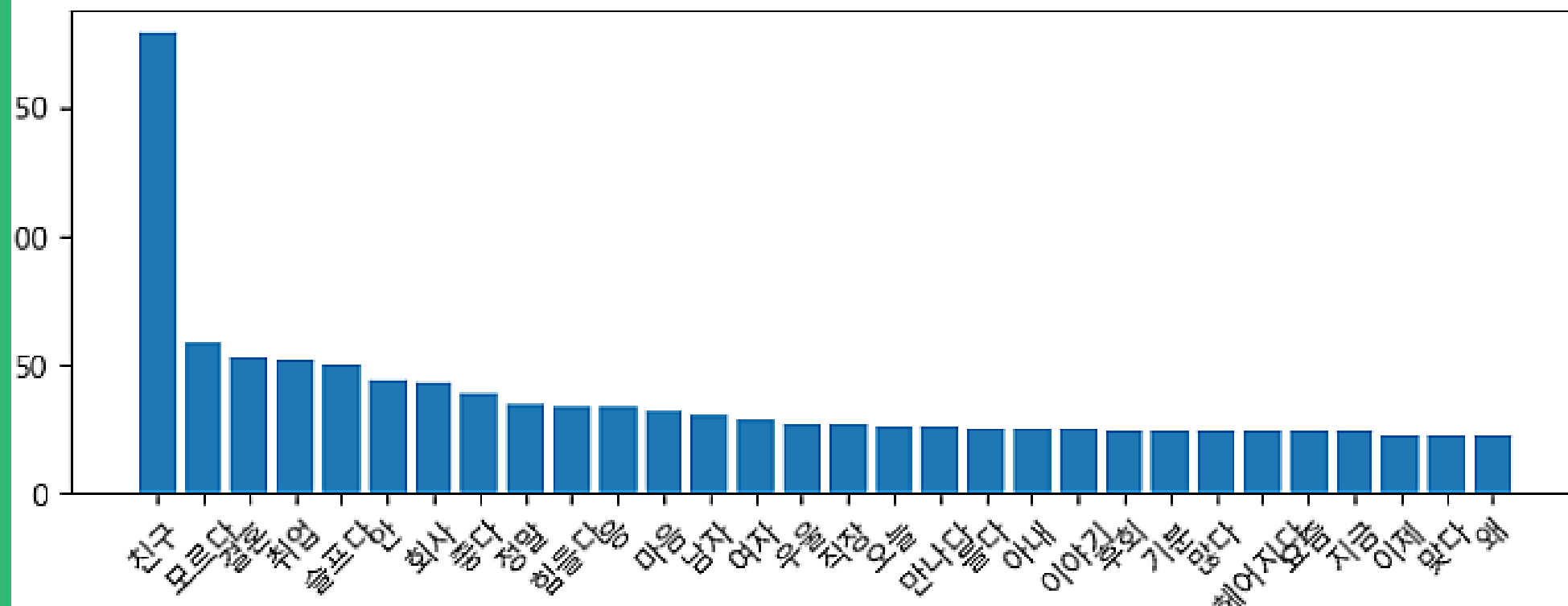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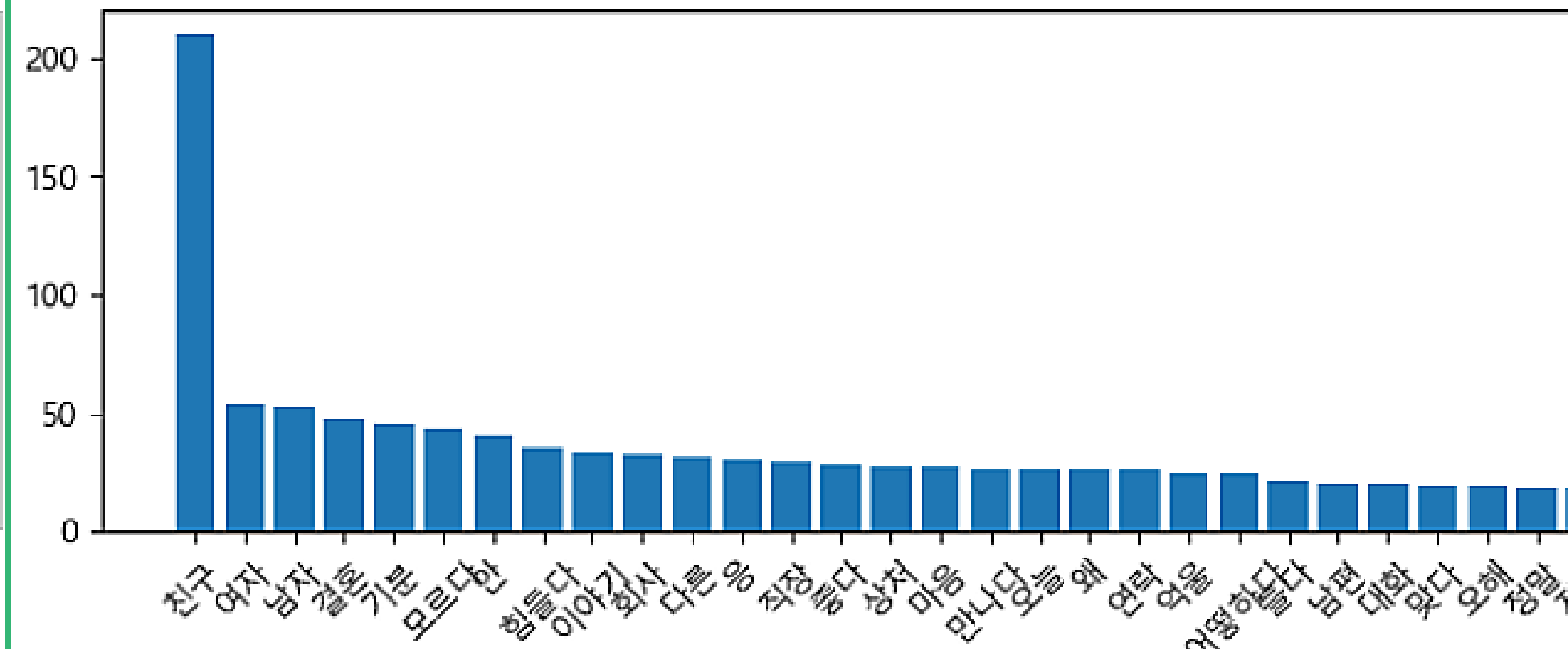
# 상처와 슬픔

청소년의 슬픔과 상처는 부모에 기인하고,  
청년은 결혼, 취업, 이성에 기인하며,  
중년은 회사,  
노년은 돈, 자식, 아픔에 기인한다.

청년,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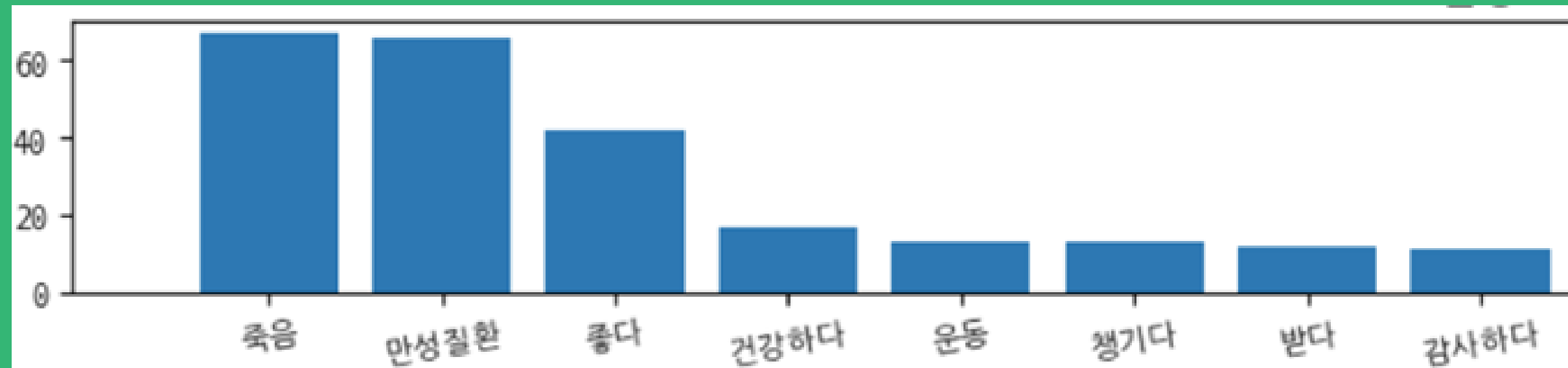


청년,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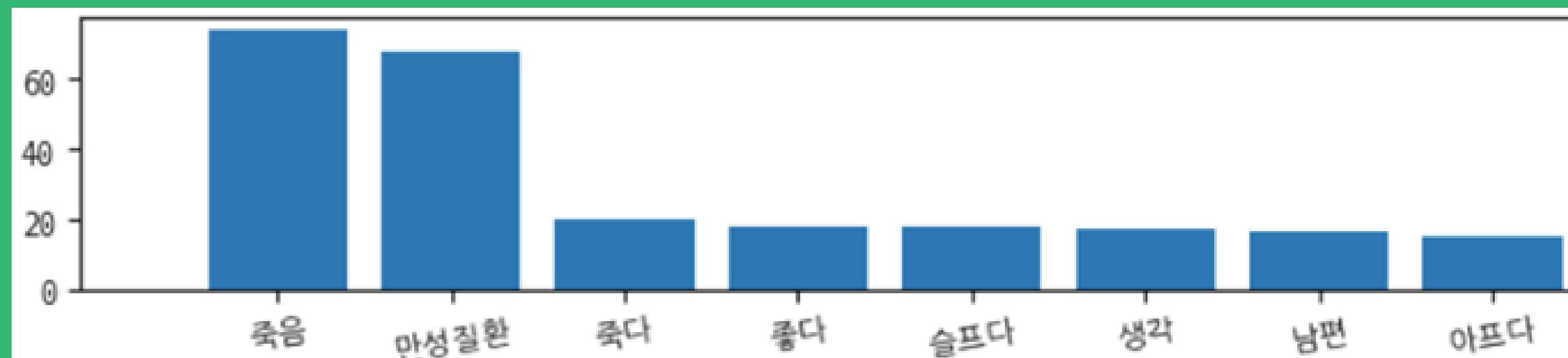




노년 + 건강, 죽음  
> 기쁨



> 슬픔



- 노년에서의 건강은 행복과 큰 관련이 있다

# 감사합니다

